

# 내년부터 저소득층 등록금 전액 지원

내년부터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저소득층 학생이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일정한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지원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역의 우수 인재가 지역 대학에 진학할 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내년에는 약 1만7000여명에게 800억 원 가량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018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지역 인재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 교육부, 2018년 지역인재장학금 지원계획 기초수급자·중위소득 100% 이내 학생

록 소득 수준을 고려해 집중 지원한다. 각 대학이 선발한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100% 이내(올해 4인가구 기준 월소득 447만 원) 학생에게는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직접 학기 12회씩 이상을 이수하고 B학점 이상(80점 이상)을 받으면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비수급 빈곤층) 학생이 의·약학 계열에 진학할 경우 전 학기 동안 등록금 전액을 우선 지원받게 된다. 기존 중위소득 100%(4인가구 월소

득 447만원) 초과 학생과 소득분위 8분위 이하(월소득인정액 982만28236 원 이하) 학생에게는 1년간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비수도권 대학 중 정부와 대학이 함께 재원을 조달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에 참여하는 대학은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성적 우수 분야와 특성화 분야로 나눠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성적 우수 분야는 4년제의 경우 내신 또는 수능 2개영역 이상 3등급 이내, 전문대의 경우 내신 또는 수

능 2개영역 이상 4등급 이내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전문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성적우수 자격기준을 내신 또는 수능 2개영역 이상 3등급 이내에서 내신 또는 수능 2개영역 이상 4등급 이내로 완화했다.

특성화 분야의 경우 대학이 성적과 관계없이 인재상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재를 자체 기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선발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며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 다니혼게이지이신문사 화장실 폭발 1명 사망

일본 최대 경제신문사인 니혼게이지(日本經濟·닛케이)신문사 본사 2층 화장실에서 21일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NHK, 마이니치신문 등에 의하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에 위치한 니혼게이지이신문사 본사 건물 2층에 위치한 남자화장실 한 칸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이에 소방 차량 20여대가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여 약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으나 화장실 약 20~30㎡가 불에 탔다.

경시청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화장실 칸 안에서 남성 1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사망했다.

닛케이 본사는 전체 31층으로, 사건 현장인 2층은 식당 등이 입주해 있어 신문사 직원 외에 일반인도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날 여성 청소원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한 칸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청소원이 들어가 확인해 보니 진실에 화상을 입은 남성이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사망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사고 당시의 자세한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 이스탄불 탁심광장, 새해 행사 전면 금지

터키 경찰이 20일(현지시간)테러 예방을 위해 이스탄불 중심지 탁심 광장에서의 새해 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했다.

아나톨루 통신 등에 따르면 탁심 광장이 위치한 베요글루 지역 경찰은 올해 1월 1일 발생한 레이나 나이트 클럽 총기난사 사건 이후 이스탄불에서 크고작은 테러가 잇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스마일 킬리 베요글루 경찰국장은 "새해를 앞두고 가장 높은 수준의 안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평화적으로 신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하 행사는 없을 것이다. 집회도 불허한다"고 말했다.

탁심 광장은 이스탄불의 교통 중심지이자 시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즐겨 찾는 명소다. 과거 이 곳에선 연말연시 자선 공연, 불꽃놀이 행사가 많이 열렸지만 테러 우려가 높아진 탓에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레이나 나이트 클럽 테러의 범인은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대원 압둘가디르 마시리포프다. 그는 신년 축하 파티가 한창이던 클럽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했다. 이 사건으로 39명이 숨졌다.

마시리포프는 당초 탁심 광장에서 테러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일대 경비가 삼엄한 것을 보고 계획을 바꿨다. 그는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다 다른 장소를 물색하다가 나이트 클럽을 새로운 표적으로 결정했다.

킬리 국장은 "안보 조치를 두 배로 강화하겠다"며 "레이나 테러범은 탁심 광장 경비 상황을 보고 마음을 바꾼 바 있다"고 강조했다.

## 인도, 공기정화용 물대포 시범 운행

대기오염이 심각한 인도에 공기정화용 물대포가 등장했다고 AFP, 가디언 등 외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델리 주정부는 이날 수도 뉴델리 동부 아난드 비하르에서 대형 헤어드라이어처럼 생긴 물대포를 시범 운행했다.

주정부의 임란 후세인 환경부 장관은 아난드 비하르를 방문해 "물대포의 스모그 방지 기능이 성공적으로 입증되면 가능한 한 빨리 뉴델리 거리 곳곳에 이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사인 클라우드테크(Cloud Tech)는 대포가 빠른 속도로 쏘아 올리는 미세한 물방울로 뉴델리 대기에 있는 치명적 오염물질을 씻겨 내리게 할 수 있다고 자랑한다. 클라우드 테크는 이날 성명에서 "대포는 분당 100l의 물을 하늘로 분출해 공기로 운반되는 오염 물질의 95%를 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포는 주로 광산과 건설 현장의 먼지를 처리하기 위해 고안됐고 대당 가격은 약 3만1000달러(약 3344만원)이다. 주정부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이를 구매할 계획이다.

클라우드테크는 뉴델리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대포 30~40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AFP에 "대기오염에 대해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이 대포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소속 현지 환경운동가는 AFP에 "(물대포는)확실히 해결책이 아니다"며 "한 지역에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해지면 가끔 이 대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기오염의 근본적 해결책은 물 뿌리기가 아닌 대기오염 통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정부는 일부 기업을 위한 대포 사업을 청안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복한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 되세요. 에버랜드 인내견학교 예비 인내견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2018년 무술년(戊戌年) 황금개띠의 해를 앞두고 인사하고 있다.

## 보성군 관급공사 비리 '복마전'... 이용부 군수 뇌물 추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보성군의 관급계약 비리 등 토착 비리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 이용부 보성군수의 측근과 동생, 브로커들이 개입해 여태의 자금유입이 추가 범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용부(64) 보성군수의 사택 건축비를 비롯해 보성군 관급계약 등에 대한 수사 중 지난 10월 18일 관급공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보성군수와 군수 측근, 관급계약 브로커, 기자 등 4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은 또 금품을 받아 전달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김지봉에

답아 땅속에 보관하거나 자신의 집에 보관했던 전·현직 보성군 경리 담당 공무원들은 수사 협조 정도를 고려해 불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2달여의 추가 수사를 거쳐 이 군수 측근과 친동생, 또 다른 계약 공무원, 기자 등 9명을 추가로 불잡아 이 중 4명은 구속기소 하고 5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검찰은 비선 실세가 관여한 보성군 관급계약 비리 등 토착 비리 사건에 대해 총 15명을 적발했으며 이용부 군수와 군수의 최측근 경찰관, 기자, 공사 브로커 등 8명을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군수의 동생, 공무원 등 7명을 불구

속기소 하는 것으로 수사를 끝냈다.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 이용부 보성군수는 추가로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군수는 벌교읍에 위치한 자신의 사택 신축비 2억 2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도 관급계약 체결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받아 대납한 뇌물로 드러났다.

이 군수는 애초 공사업체에게 실제 투입된 공사 대금보다 약 9200만 원 적게 지급해 차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로 기소 됐으나 자신이 업체에게 지급했던 공사대금조차 업체들로부터 받은 뇌물로 확인된 것이다.

보성=안구일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 02. 09~02. 25(17일간)  
• 패럴림픽 2018. 03. 09~03. 18(10일간)

PyeongChang 2018  
PyeongChang 2018

아저는 평창에 있습니다